

# 명태·참치 수출 '뚝'...수산업 비상

### 1~7월 수출액 17억4470만달러...지나해 동기대비 11.5% 감소 명태 수출액 82.8%·참치 21.1%↓...수산물 수출량 26.9% 하락 수산물 가격도 10% 안팎 하락...오염수 방류에 수요 감소 우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초비상인 가운데 올해 수산물 수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경기는 매년 증가를 거듭해 왔지만 감소로 돌아섰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 여파로 수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산물 수출액은 17억447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1.5% 감소했다.

1~7월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0년 13억460만달러에서 2021년 15억1020만달러, 지난해 19억70120만달러로 3년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17억4470만달러로 증가세가 꺾였다.

품목별로 보면 명태 수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명태는 올해 수출액이 2910만달러로 82.8%나 감소했고, 참치 수출액은 3억2200만달

러로 21.1% 줄었다.

또 전복 수출액은 3260만달러로 5.2% 감소했다.

김 수출액만이 4억7220만달러로 전년보다 13.7% 늘어났다.

수출액 감소와 더불어 수출량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1~7월 수산물 수출량은 43만1600t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1억4170만달러로 1.4% 감소했다.

1~7월 수산물과 농축산식품 수출액을 더한 농수산물 수출액은 68억864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1% 줄었다.

또 농수산물 수출량은 279만3500t으로 6.7%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아 수

산업계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냉장갈치 1마리 가격은 5050원으로 1년 전 가격인 7507원보다 32% 감소했고, 1개월 전(6286원) 16.2% 하락했다.

고등어도 지난 25일 기준 1마리에 3848원으로 1개월 전 보다 5.4%, 1년 전과 비교하면 7% 하락했다.

전복 가격은 1년 전 5마리 기준, 1만6330원에서 1만768원으로 무려 34% 떨어졌다.

반면 냉동 상품은 냉장 상품과 비교해 가격 변동 폭이 적었다. 냉동 갈치 1마리 가격은 4733원으로 1년 전(4454원)과 1개월 전(4832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소금과 같은 저장성 품목 가격 역시 큰 영향이 나타나진 않았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산물 가격 하락이 단순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의 수출, 국내 수요량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나해 원양어업 생산량 40t...전년 대비 8.9% ↓

### 영업이익은 35.2% 증가

지나해 국내 원양어업 생산량은 8.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나해 원양어업에 종사한 업체의 생산·수출·경영실태 등을 조사한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40만t, 생산액은 1조 126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각각 8.9%, 14.1% 감소했다.

수출량은 작년보다 4.8% 감소한 15만t을 기록했다.

다만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28.7% 증가한 5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양생산 어종 중 작년보다 생산량과 생산액이 유일하게 증가한 어종은 가다랑어였다.

수출량은 이빨고기, 오징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에서 감소했다.

수출액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이빨고기 등에서 늘었으며, 미국, 필리핀, 태국으로의 총수출액이 증가했다.

작년 국내 원양업체 총영업이익은 3497억원으로 작년 대비 35.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739억원으로 0.5% 줄어들며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원양업체의 수익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지나해 원양업체 종사자 수는 총 1만791명으로 작년보다 16.2% 감소했다. 원양어선원은 5749명으로 2.8%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외환 담당자 고객관리 집합교육

### 환전·해외송금 실무 등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5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농·축협 외환업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 CRM(고객관리) 업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농협은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금융 외환사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은 ▲환전·해외송금 실무 ▲CRM(고객관리)을 활용한 마케팅 ▲23년 하반기 상호금융 마케팅 전략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평소 업무현장에 필요하다고 느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실무에 적극 활용해 농업인과 고객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상호금융 인직원 모두가 금융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성신(왼쪽 네 번째) 본부장 등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제 2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농협 광주본부,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서 홍보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2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답례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고성신 본부장과 이선학 광주통합RPC 대표이사를 비롯, 농협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박람

회를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배부하며 대국민 공감 확산에 노력했다.

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역 대표 브랜드 쌀 '빛찬들햇쌀'의 2023년산 햅쌀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하고 쌀 소비촉

진 캠페인을 펼쳤다.

고성신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 효과를 알리고 대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진청, '도담쌀' 비만·당뇨 예방 효과 입증

### 인슐린 저항성 38% 감소

농진청은 저당전분의 함량을 높인 '도담쌀'의 당뇨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저당전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해 장내 세균의 양양분으로 작용하는 탄수화물이다.

농진청은 벼를 열처리한 뒤 도정한 현미를 210~240도로 볶아내는 방식으로, 저당전분 함량은 높이고 혈당 지수는 낮춘 '도담쌀'을 개발했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도담쌀이 인

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최종당산화물(염증 및 당뇨 합병증의 원인 물질)의 축적을 막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비만의 성인남녀 28명에게 도담쌀 현미 식이를 하루 2번 식사 대응으로 먹이니 인슐린 저항성이 38%가량 감소했다.

최종당산화물 축적도 약 3% 감소해 당뇨 및 염증 예방 효과가 있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담쌀을 원료로 한 가공 식품의 산업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